

# 「사회과학문헌센터」 설치에 관한 보고서

本報告書는 UNESCO 巴里本部로 부터 韓國에 「社會科學文獻센터」設置를 爲하여 派韓되었던 Badr Kasme 博士가 UNESCO에 報告한 것을 全譯한 것입니다.

Badr Kasme氏는 圖書館學을 專攻하였으며 政治學博士이며 1949년부터 駐在제네바 국제연합 도서관(United Nations Library in Geneve) 法政課長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Dr. Badr Kasme

崔 聖 子 譯

- |                          |                            |
|--------------------------|----------------------------|
| I. 센터의 목적과 역할            | 1. 현재의 장서                  |
| 1. 일반적 목적                | 2. 참고도서                    |
| 2. 문헌센터와 도서관의 차이         | 3. 정기간행물                   |
| 3. 문헌센터가 후진국가에 기여하는 효용성  | 4. 일반장서                    |
| II. 연세대학교 도서관내에 센터 설립가능성 | V. 센터의 간행물                 |
| 1. 시설                    | 1.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 색인         |
| 2. 시설과 기술적 능력            | 2. 한국사회과학 초록               |
| 3. 도서관학과의 존재             | 3. 기간서목                    |
| 4.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용          | VI. 종합목록                   |
| 5.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센터 자금 조달   | 1. 종합목록의 필요성               |
| III.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개관       | 2. 도서의 종합목록                |
| 1. 도서관 실무                | 3. 정기간행물의 종합목록             |
| 2. 개선 및 변경               | 4. 도서관 상호대차                |
| a) 수서                    | VII. 한국내의 최신 사회과학연구에 대한 색인 |
| b) 정기간행물                 | VIII. 센터의 봉사               |
| c) 목록                    | IX. 직원                     |
| IV. 센터의 장서               | X. 예산                      |
|                          | XI. 기타                     |

## 연세대학교 도서관내 사회과학 문헌센터 설립에 관한 보고

### I. 센터의 목적과 역할

이 한국의 사회과학 문헌 센터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열람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센터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과학 연구를 조장시켜 주고 자극하게 될 것이다.

센터는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한 색인을 만들므로써 국내 전

문가들의 저작을 망라하는 일을 꾀할 것이다.

센터는 전세계의 사회과학 센터 및 기관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기관들과 간행물을 교환할 것이며 한국내의 사회과학 문헌에 관련된 모든 문체에 대한 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 봉사할 것이다.

이 센터는 전한국의 학자, 교수, 학회, 대학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약술한 제목적에서 센터와 그것에 이 센터가 부속하여 있을 수 있는 대학도서관과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센터는 도서관 봉사(장서, 목록, 열람자 등)의 단순한 확장 만은 아닌 것이다. 센터는 기사에 대한 색인, 초록, 서록, 종합목록 등을 간행하여 열람자에게 문헌을 제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며 열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시해 주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들 분야의 학문의 발전을 따라 갈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센터는 특별한 스테이타스를 갖는 정식직원과 알맞는 재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외관으로 그들의 경제발전이 시급한 후진국가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제발전, 곧 산업발전이란 대부분 연구에 의존하는 까닭인 것이다.

본인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하고서 한국 5개년 계획단이 발표한 바 문헌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UNESCO의 원조로 이러한 센터를 설립한 제국가, 곧 India, Indonesia, Brazil, UAR 및 한국이 모두 큰 발전과정에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 당국자들은 누차 그것의 실현을 UNESCO 담당 기관에게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이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 II. 연세대학교 도서관내에 센터 설립 가능성

연세대학교 도서관내에 한국의 사회과학 문헌센터 설립은 그 기관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 1. 시설

연세대학 도서관은 센터자리로 세계의 인접한 방을 제공하였다. 이 방들은 사회과학의 장서를 비치한 서고와 직접 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기간행물 열람실인 큰방이 결국 센터위 서고로 사용될 것이며 3만권 이상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전기한 방들에는 현재 책상, 절상, 서가, 서류철, 카드목록, 상자, 책장등이 있으며 이 모든것이 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몇가지 가구 곧 정기간행물 전시할 특별한 서가, 열람자를 위한 책상과 절상 및 더 많은 목록상자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한방은 직원의 사무실로 쓰일 것이며 다른 두방은 다음을 비치할 것이다.

#### a. 사회과학의 참고도서 :

서록, 백과사전, 사전, 통계년감, 중요한 문서집 및 중요한 교과서 몇가지.

b. 24~30명의 열람자를 위한 책상과 절상(만일 정기간행물 열람실이 센터의 몫이 되면 책상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c. 250종의 정기간행물을 전시할 칸막이 달린 서가(신년도본 만이 비치될

것이다.)

- d. 대달 바뀌어 전시해야 하는 신간을 전시할 서가, 오래된 것은 서고나 인접한 큰방이 센터의 몫이 되면 그곳에 가져갈 것이다.
- e. 서적과 정기간행물의 종합목록과 사회과학분야의 최신연구에 대한 색인을 넣어 둘 목록상자.
- f.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카드를 넣는 장.
- g.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카드리더.
- h. 최신문서와 비인쇄문서파일.

## 2. 기술적 기구와 시설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마이크로필름서비스(한국 유일의), 사진복사 서비스 및 음셀 서비스를 하는 귀중한 기구를 본 센터에 제공하였다.

그의 장서를 완비하기 위하여 센터는 절판된 중요한 도서 가운데 몇을 마이크로필름본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교수 및 학자, 또는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도서나 기사의 마이크로필름 및 사진복사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두말할 것 없이 수수료를 받거나 간행물 교환으로 제공될 것이며 다만 시간과 직원 제한에 좌우될 것이다.

음셀복사기는 센터의 간행물에 쓰일 것이므로 제공된 기구는 센터의 사업과 센터가 출판 혹은 복사한 간행물과 교환하여 신간수집업 유용하게 될 것이다.

## 3. 도서관화과의 존재

잘 훈련받은 직원과 훌륭한 도서관학 장서를 가진 연세대학교 도서관화과의 존재는 능률적 운영에 필수적 참고자료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직원과 조언을 센터에

제공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도서관원 중 많은 사람이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종합목록과 같은 일반적 계획에 있어 센터와의 필요한 협력을 확보해 줄 것이며 또 한편 연세대학교 도서관장 이기도한 도서관학과 과장이 앞으로 2년간 한국도서관학회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기관의 협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4.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이용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사회과학의 현장서가 사회과학의 '훌륭한 장서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장서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순수한 사회과학분단 안이나 역사나 심리학 같이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도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유리한 점인 것이다.

다른 한편 주문이나 분류 및 목록을 위한 도서관 업무를 이용하므로 제한된 센터의 직원으로 정기간행물의 색인, 초록, 서목을 준비하는 등 참고분야에 속하는 다른 활동에 힘을 경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센터자금조달

연세대학이 센터를 대학도서관내에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것은 대학이 그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다. UNESCO는 다만 사회과학의 UNESCO 간행물을 센터에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가 파견과 문헌수집 면에 일할 한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일년간의 장학금을 제공할 뿐이다. 센터의 설립으로 아마 미국학회들로부터 도서나 자금을 기증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센터는 직원의 월급과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대부분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재정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 Ⅲ.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개관

본인은 센터가 연세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하여 연세대학 도서관현황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도서관 수서제는 제학과 교수들께 서목 및 출판사 목록을 돌리던 교수들은 학년초, 학년중에 그 중에서 추천해 주는 것이다. 목록은 미국 A.L.A., L.C. 규칙을 따르고 분류는 Dewey 십진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목록은 서가목록, 저자 및 서명목록 D.D.C.에 따라 배열된 분류 목록의 세가지가 있으며 저자 및 서명목록 상자 안에는 또한 주제색인 카드가 들어 있어 열람자의 분류목록 사용을 도와 주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별개의 목록(정기간행물 표제의 자모순에 따른 것과 분류순에 따른)이 정기간행물실에 있는데 카드는 서적에 사용하는 카드와 같은 크기로 정기간행물의 년수와 권호를 기록할 네모가 되게 세로, 가로로 구분되어 간행물이 입수 되는대로 칸에 기입되며 빠진 권호는 나중에 기재하고 예약이 갱신될때도 정기간행물조수가 그 사항을 기록한다. 기증의 경우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오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다. 년감이나 축차간행물중 몇가지는 정기간행물과 같이 목록이 작성되고 또 몇가지는 단행본으로 취급되어서 서적목록에 통합되는 것이다.

#### 도서관실무의 개선과 변경

비록 도서관실무가 센터에 만족스러운 것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개선과 변화가 가져야 할 것이다.

#### a) 수 서

1) 도서주문은 정기적기간을 두고 최소한 월1회씩은 해야할 것이며, 도서의 선택은 전적으로 도서관에 보내온 몇몇 출판사 목록에만 기준을 두면 안되며 주요 주간지의 논평은 반드시 읽어 중요한 책이 주문에서 빠지지 않았는가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특별히 Economist나 Times Literary Supplement 같은 주간지는 비미국 도서 구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le livre du mcis 같은 불란서 책이나 des Deutsch buch 같은 독일 책이 센터에 도착되어 주문에 사용될 것이다.

2) 이제껏 연세대학은 외국신간을 구입함에 별 난관이랄게 없었다. 도서관은 이 목적을 위하여 미화 6,000弗을 책정하였는데 거의 반액은 정기간행물을,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회과학 간행물을 위하여 소비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분야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이 상당히 증가하기때문에 거기 응하여 원래의 예산이 증가해야 할 것이며, 센터에서 외국간행물을 구입하는데엔 UNESCO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쿠폰의 이점(利點)은 쿠폰을 갖고 도서를 구입할때는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쿠폰의 우송료는 면제되며 외국의 통화제한에 저촉되지 않을뿐 아니라 1, 3, 10弗의 소액의 쿠폰이 있으므로 편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센터는 수서를 위한 필요량의 쿠폰을 한국내의 국가분배기관에서 분배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쿠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UNESCO Bulletin for Librarians. Mar.-Apr. 62. pp. 86~89에 있는 Gardner의 기사: UNESCO coupons assist documentation services를 보라)

3) 센터는 절판된 도서나 혹은 때때로 미국대학의 typewriter도 쓰여진 논문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간행물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만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류의 도서 구입은 현재에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장래에는 다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4) 기증이나 교환으로 더 많은 도서가 수집되게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많은 국내 국제적 과학분야 사회기관과의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Annex 4 39개소를 보라.) 동서관문서나 타이프로 찍어서된 논문같은 것은 상업적 수단으로는 구입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계약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 오기전에 본인은 Library of Congres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뉴욕에 있는 UN 사회분과 등을 방문하였는데 모두 계획된 센터를 도울것이라고 약속하였던 것이다. 5월2일 일자로, 본인은 미국국회도서관 참고제장인 Dr. Dubester와 카네기재단의 출판책임자인 Miss. Winslow氏께 그들의 기관의 목록에 기록된 약50여종의 출판물을 센터에 보내달라는 편지를 띄웠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사관의 문화교류 담당부들과 British Council 및 Alliance Francaise 같은 주요 외국문화학회와의 계약을 맺어 그들의 간행물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5) 어떠한 이용자인지나 어떠한 때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간행물을 제시하게끔 센터에 추천도서목록을 두는 것이 편리 할 것이다. 그렇게 제시된 간행물 구입결정은 센터장이 할 것이다.

#### b. 정기간행물

센터에 도착된 정기간행물은 열람하기

쉽게 카덱스카드에 기입하고 예정 일자에 도착치 못한 것에는 색채 씨그날로 표해 차례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덱스 카드의 이용법은 도서관과 도서관학과 교수사이에 잘알려져 있었다. (본인이 견본 하나를 증명하였다.) 또한 모든 년감이 정기간행물과 함께라든가, 혹은 독자적으로 카덱스카드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년감류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매년 주문되어 체계적 주문방법을 세워서 할 것이다.

#### c. 목 록

센터의 도서는 전과 같이 목록될것이나 사회과학의 신간서적에 대해서는 카드한 질을 부가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과학분야에만 쓰여질 새 목록에 이용되는 것이고 센터에 보관될 것이다. 본래의 장서에 대한 카드는 한국도서관내에 있는 사회과학문헌 종합목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기사에 대한 특별한 목록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목록은 센터가 수집하는 정기간행물에서 선정된 기사의 색인을 간행하는데 초본이 될 것이다. 기사에 대한 목록은 주제별이어야 될것이고 같은 주제내에선 년대순이어야 할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주어진 주제 안에서 최신간을 신속히 찾게 해 줄 것이다. 카드목록의 이점(利點)은 인쇄된 색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Ⅳ. 센터의 장서

##### 1. 협장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사회과학 장서가 센터장서의 전부인 셈인데 전장서 170,000권중 70,000권이 양서(洋書)이다. 참고도서실에 현재 비치된 사회과학분야의 도서

100권은 양서이며 나머지는 잡다. 서지목록 20, 백과사전 6, 기술용어집 6, 통계년감 6, 명감과 년감 17, 교과서 45권이다. 사회과학의 장기간행물 415종에서 170종이 서양정기간행물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오고 있는 것은 다만 40종의 서양정과 63종의 동양정기간행물인 것이다. 사회과학분야 도서의 증가는 작년 1년동안 양서 452권(115권은 구입, 337권은 기증)과 동서 400권(260권은 구입, 160권은 기증)이 증가되었다. 센터는 사회과학의 문헌수집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정기간행물과 참고도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별히 각종의 서목을 수집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2. 참고도서

문헌센터에서는 다만 문헌만이 아니라 주어질 주제에 대한 있는한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되므로 서록은 필수적 도구인 것이다. 서지사항을 아는것은 다음번 주문과, 다른 도서관에서 필요한 문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세대학에는 기사에 대한 색인목록이 없어 이러한 서록은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기간행물 이용에 더욱 유익할 것이며 참고사항을 찾는 데 소비하는 많은 시간이 이 서지목록을 사용하므로 절약될 것이다. 연구의 중복이 없어질 것이며 방대한 문헌에다 터잡은 연구가 결과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 것이다. 센터에 의해 수집된 100개의 중요한 서지사항의 리스트가 첨가서류에 실리었다.(40개의 새로운 서지사항이 잡지와 함께 실리었다.) 대개 1950년 이후의 것에서 수집되었으나 결판된 몇개는 마이크로필름에서 수집한 것이다. 년감, 명감

등도 또한 증가하여야 될 것이고 최신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센터의 참고도서는 약 500권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오래된 참고도서는 신간과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3. 정기간행물

과학의 진보에 병행하는 데는 정기간행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많은 주제에 대하여, 더욱 새로운 문제에의 참고사항이 주로 이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문헌센터를 도서관에서 구별해 내는 특징의 하나로 정기간행물이 센터에선 형식면에서 만도 책보다 중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센터는 첫해동안에 사회과학 정기간행물 200~250종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도서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집이 되지 않으므로 센터에서 수집할 중요한 서양정기간행물 160종을 실은 목록이(40종은 신간 서지목록이다.) 첨가서류에 실리어 있다. 사회과학의 서양정기간행물에 대한 종합목록의 작성에 있어 특히 영어로 써지지 않은 것중 어떤 정기간행물이 수집되고 어떤 것이 수집되지 않아야 하는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수집은 한국내의 한 도서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 4. 일반장서

사회과학(경제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의 도서수집은 그 분야의 연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집해야 할 것이며 년평균 1000~1500권의 양서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기관의 문서와 같은 특별한 간행물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센터는 UNESCO의 사회과학에 대한 모든 간행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UN의 문서들은 그와같이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대학 도서관

과 같이 한국에 있는 도서관으로 U.N.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들이는 지정 도서관 (depository Lib)이 이미 있는 까닭인 것이다. 본인은 Dag Hammarskold Lib.의 참고도서관원 Winton씨는 물론 뉴욕에 있는 U.N.본부 Distribution Services와 센터를 다른 하나의 지정도서관으로 만들 수 없을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특히 한국은 아직도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거절되었던 것이다. U.N.의 사회부 문 책임자 Kofski씨와의 의논 가운데 특별한 청으로 이 분과로서의 개별적 간행물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U.N.간행물의 대부분은 구입해야 할 것이다. (수집해야 할 U.N.의 중요한

행물 목록은 첨가서류에 실리어 있다.)정규적으로 구입된 총서에 관해서도 지시사항을 붙이였다. 본인은 아세아 및 극동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에 그 기관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보내 주기를 청하는 편지를 띄웠던 것이다. 이 간행물들은 한국연구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본인은 센터로 ECAFE의 문서들을 보내는가를 확인키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중에 방콕에 있는 ECAFE를 방문하고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이 중요한 국제기구의 간행물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 原稿를 募集합니다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 여러분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原稿內容: 1. 圖書館事業에 關한 參考될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 소식  
3. 其他

磨勘 每月 15日 內로

—編輯室白—